

클라우드소싱(crowd sourcing) 번역의 번역수업 활용 제안 - 일본의 클라우드소싱 번역 사이트를 중심으로 -

이 주 리 애
(이화여대)

1. 들어가며

클라우드소싱(crowd sourcing)이란 2006년 제프하우(Jeff Howe)에 의해 도입된 용어로 인터넷을 통해 대중을 참여시켜 아이디어를 얻고 기업 활동에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¹⁾. 이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발달로 인소싱과 아웃소싱이 진화한 개념이며, 비용을 낮추고 문제 해결 소요 시간의 단축 및 솔루션의 폭이 확대되는 장점(이동현, 이천재 2012: 58)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1)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20760&cid=43667&categoryId=43667>)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4568&cid=42107&categoryId=42107>)

있는데, 번역 시장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²⁾(孟 2014: 1). 클라우드소싱 번역³⁾으로 기존의 의뢰형태에 비해 시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번역자 외에 기계번역, 번역 메모리, 자동화된 스타일가이드, 감수 등을 동원하여 완성도 높은 번역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De Palma & Kelly 2009: 380). 클라우드소싱 번역은 기계번역의 한계를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힘을 빌려 극복함으로써, 번역에 관심 있는 대중과 저렴하고 신속한 번역을 원하는 의뢰인을 모두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클라우드소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지 10여년이 흐르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현재 포털사이트에서 ‘클라우드소싱’을 검색해 보았을 때 주로 ‘디자인’, ‘아이디어’, ‘펀딩’ 등을 다루고 있고, 번역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을 연결시켜주는 대형 사이트는 눈에 띄지 않는다. 한편, 일본의 포털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클라우드소싱’을 핵심 단어로 내세우며 업무를 연결해 주는 사이트들이 다수 등장한다. ‘클라우드소싱 번역’이라고 검색했을 때도 한국은 눈에 띄는 업체가 거의 없는 반면, 일본에서는 ‘클라우드소싱 번역’을 앞세워 광고하고 있는 번역 서비스 업체들이 등장한다. 물론 전문번역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검증되지 않은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직업인으로서의 번역사의 입지를 좁힐 뿐만 아니라 번역 결과물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흐름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만 있다면 어느 곳에서도 데이터를 생성, 공유, 저장, 출판 및 비즈니스가 가능한 웹2.0시대⁴⁾에 클라우드소싱 번역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향후 시행착오를 거쳐 점차 보완되면서 번역시장의 주요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 단계에서 각종 클라우드소싱 번역 사이트를 살펴보았을 때, 번역 의뢰의 내용과 비용 등 제반 측면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은 전문 번역사의 영역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의 흐름

2) 모(孟 2014)는 Common Sense Advisory에 따르면 클라우드소싱 번역 시장은 언어서비스 회사 상위 30사가 2013년 현재 향후 5년간 10% 이상의 성장이 예측된다고 하였다.

3) 본 논문에서 클라우드소싱 번역이라 함은 강연, 기사, 동영상 등 각종 커뮤니티사이트의 자발적인 네티즌 번역과는 달리 개인의 의뢰를 받아 번역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거나 번역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를 통한 번역을 말한다.

4)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57095&cid=40942&categoryId=32854>)

을 번역 교육의 현장에서 비전문가의 영역으로만 보고 배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각 크라우드소싱 번역 사이트를 살펴보았을 때, 번역 품질은 논외로 하더라도, 번역 의뢰 방식과 번역물 수행 과정, 번역에 대한 감수 혹은 피드백 방법 등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크라우드소싱으로 모집된 번역자들을 위해 개발된 번역툴이 제공되기도 하고 품질개선을 위해 전문 번역사의 사후 편집으로 보완하는 등의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Zaidan 외 2011; Yan 외 2014; Yan 외 2015). 이렇듯 IT의 발달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번역 환경에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기 위한 수업 방식과 발전된 툴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일한/한일 번역 수업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일본의 크라우드소싱 번역 사이트를 중심으로 각 기능들을 살펴보고, 크라우드소싱 번역의 교육적 활용과 응용 방안에 대해 논의 및 제안하고자 한다.

2. 크라우드소싱 번역

2.1. 번역 의뢰 방식의 변화

크라우드소싱 번역은 기존의 기계번역을 포기하고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오픈함으로써, 집단지성의 힘으로 발주자와 수주인을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번역 수행은 의뢰인이 번역 서비스업체 혹은 개인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번역을 의뢰하면 업체 혹은 개인이 번역사를 선정하여 연락을 취하고 번역 의뢰 승낙을 받은 후 번역물을 번역사에게 송부하여 기일까지 납품하도록 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크라우드소싱 번역은 번역자(전문 교육 여부와 경험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번역사’, ‘번역가’ 보다는 ‘번역자’라는 용어를 사용함)가 해당 사이트에 구사 가능한 언어와 아이디/패스워드를 등록해 놓으면 해당 언어의 의뢰가 있을 때 등록된 모든 번역자에게 의뢰물이 공개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의뢰인이 번역 의뢰물을 온라인상에 등록(경우에 따라 요금제 선택)하면 주문이 완료된다. 한 의뢰에 대한 다수의 번역을 비교해 볼 수 있고 의뢰인은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번역을 선택하여 비용을 지불하거나 포인트를 줄 수 있다. 의뢰인이 번역물을 대중에게 공개하기를 꺼리거나 고품질 번역을 원할 경우에는 특정 번역자에게만 의뢰가 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 의뢰로 클라이언트와 번역자의 1:1 번역이 1:다수(crowd)의 번역으로 변화되고, 클라이언트와 번역자 모두 각각 번역 결과물과 의뢰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여 오픈소스로 집단지성의 힘을 이용하는 인소싱→아웃소싱→크라우드소싱, 나아가 인소싱과 크라우드 소싱을 결합한 인터소싱(박범진 외 2012)에 이르기까지, 업무 의뢰는 그림 1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번역의 의뢰 형태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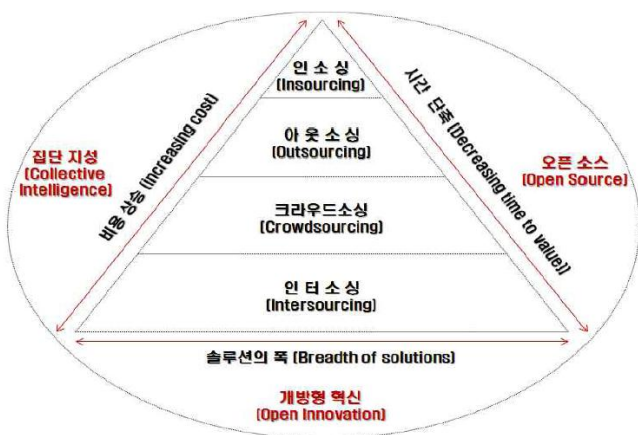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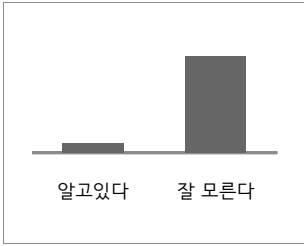


그림 1 시간과 비용에 따른 업무 의뢰의 종류(이동현,이천재 2012: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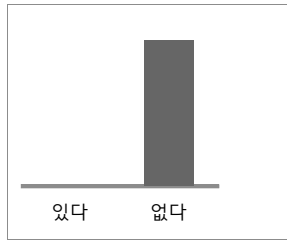
2.2. 크라우드소싱 번역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

크라우드소싱 번역을 실습하기에 앞서 통번역을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크라우드소싱 번역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2016년 3월~4월 현재 통역번역대학원 일한 통번역 전공생 2학년 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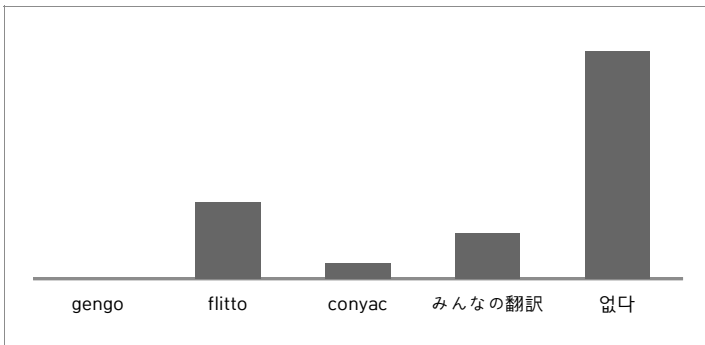
(질문1) 크라우드소싱을 아는가?



(질문2) 크라우드소싱 번역을 접해본 경험



(질문3) 알고 있는 사이트



설문조사 결과, 크라우드소싱을 알고 있는 학생은 22명 중 2명에 불과하였고 크라우드소싱 번역을 접해 본 경험은 22명 모두 전무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네 개의 사이트에 대해서는 ‘플리토(flitto)’가 세 명, ‘코냐크(conyac)’이 한 명, ‘민나노 혼야쿠(みんなの翻訳)’가 두 명 있고 나머지는 모두 알고 있는 사이트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은 크라우드소싱 자체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고 그렇게 때문에 플리토나 코냐크와 같은 사이트를 접해 보거나 들어보았다 하더라도 그 사이트들이 크라우드소싱 번역 사이트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업무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최첨단 IT 시대에 장래 사회에 진출하여 다양한 번역 업무의 스타일에 적응해야 하는 환경임을 생각할 때, 비록 간단한 설문 조사이지만, 학생들에게 외부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겠다.

2.3. 클라우드소싱 번역의 분류

현재 여러 클라우드소싱 번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여러 종류의 클라우드소싱 항목 중의 일부인 경우
- (2) 비오픈소스형
- (3) 오픈소스형
- (4) 자원봉사형

먼저 (1)다양한 분야의 업무 의뢰를 모아놓은 클라우드소싱 사이트에서 일부 항목으로 번역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를 보도록 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연구용으로도 많이 활용되어 온 대표적인 클라우드소싱으로는 미국 아마존의 미케니컬 터크(Amazon Mechanical Turk), 일본의 랜서즈(lancers.jp) 등을 들 수 있다. 미케니컬 터크의 경우, ‘translation’이라고 검색하면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의 번역 의뢰물이 올라와 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사이트에 접속하면 어떤 의뢰가 있는지 볼 수 있고 원하면 회원으로 등록하여 번역물을 올릴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번역도 한눈에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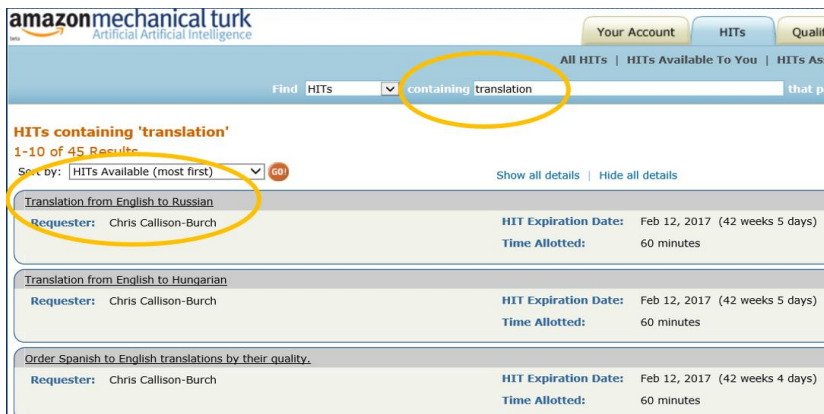


그림 2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의 번역 의뢰물

다음으로 (2)비오픈소스형 크라우드소싱 번역 전문 사이트이다. 모라비아(moravia), 겐로컬리제이션(getlocalization), 라이온브리지(lionbridge) 등의 회사는 번역과 관련하여 로컬리제이션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겐고(gengo)는 그간 번역된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어 의뢰인이 사전에 품질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번역 의뢰가 메일로 오면 번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오픈소스형으로 분류하였다.

세 번째는 (3)오픈소스형 크라우드소싱 번역 전문 사이트이다. 누구나 의뢰물로 올라온 게시물을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번역 결과물을 보게 되어 있다. 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sites, SNS)와 유사한 형태로, 한국의 플리토(flitto), 일본의 코낙(conyac) 등을 들 수 있다. 여러 번역 중에서 의뢰인이 마음에 드는 번역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플리토의 경우는 번역물로 채택되면 포인트를 지급받고 코낙은 글자 수로 계산하여 보수를 받게 되어 있다⁵⁾.

마지막으로 (4)자원봉사형 번역 전문 사이트이다. 한국의 가생이닷컴, 미국의 TED, 라쿠텐 자회사로 글로벌 회사인 비키(viki), 비영리단체인 글로벌 보이스 등 다양한 자원봉사 번역으로 운영되는 사이트가 있으며, 공개적으로 번역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특정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우선으로, 그 보조로서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민나노 혼야쿠(みんなの翻譯:모두의 번역)’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목적의 우선순위가 번역 및 번역을 위한 학습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번역을 돕는 번역 에디터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공개와 비공개를 선택하여 번역물을 게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자신만의 번역물, 용어를 축적해 나갈 수 있다.

5) 이러한 오픈소스형인 경우, 의뢰인이 채택한 번역에 대해 정직하게 포인트 및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 있다. 번역자들이 올려놓은 번역을 사용하기만 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트를 살펴본 바로는 일부 번역자의 경우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번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점차 다변화되고 있는 번역 의뢰 형태에 대비하여 윤리적인 문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 클라우드소싱 번역의 수업 적용

앞서 클라우드소싱 번역의 종류를 개괄해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 일한/한일 번역 수업에서 이용해 볼 만한 사이트로는 부담 없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직접 번역에 참여하지 않고도 다양한 의뢰와 번역을 둘러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번역에디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한국의 플리토, 일본의 쟁고, 코낙, 민나노 혼야쿠를 선택하여 교육적 이점을 살펴보고 그 활용 및 응용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3.1. 클라우드소싱 번역의 수업 활용

번역이 점점 전문화되고 다양해지면서 번역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학 실력 뿐 아니라, 고객과의 소통, 번역과정, 협업, 로컬리제이션, 번역테크놀로지의 능숙한 사용 등 여러 가지이다. 번역사 지망생이 대학 혹은 대학원과 같은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 후 전문 번역사로 활동하게 됐을 때 실무 현장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교육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능력을 함께 습득하는 수업 방식이 고안되고 있다. 수업에서 실무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번역브리프의 도입(김진숙 2011), 이메일을 통한 의뢰인(교수자)과 번역자(학생)의 소통(함채원 2016), 실제 환경을 모방한 ‘시뮬레이션’수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실제 번역 의뢰물과 이메일을 통한 사용자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실제 상황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예(김현아 2014)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의 번역 수업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언어서비스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김련희 2011), 수업에서 단지 번역에 도움이 될 만한 텍스트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번역하게 한 후, 결과물에 대해 표현을 점검하고 토론하여 보다 좋은 번역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과의 소통, 번역 과정 등을 배워 나갈 수 있는 수업의 형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아무리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연출하여 교육을 시도해도 학생들이 긴장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실제 번역을 수주하여 학기 중에 전문번역사로 활동하기에는 학업을 수행해야 하는 학생으로서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실력 면에서도 미숙하여 쉽게 시

도해볼 수는 없다. 이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크라우드소싱 번역이 비전문 번역자에게 개방되어 있어, 실제 의뢰를 받아볼 수 있고 그 결과물이 인터넷 상에 공개되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에 도입하기에 알맞다고 판단되었다. 먼저 플리노, 코냐, 민나노 혼야쿠, 쟁고의 기능 및 활용 예를 제시하고 이들 사이트들을 교육용으로 활용했을 때 이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3.1.1. 각 사이트의 기능

① 쟁고(gengo)

쟁고는 질 좋은 번역을 위한 매뉴얼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계정을 만든 후 두 단계의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번역자로 활동할 수 있다⁶⁾. 합격기준이 까다로운 편이어서 이 사이트는 학생들에게 번역 시험을 경험해 보는 용도로 사용해 볼 수 있다.



그림 3 gengo의 예(번역 테스트, 고객리뷰, 품질의 수치화)

② 플리토(flitto)와 코냐(conyac)

플리토와 코냐는 쟁고와 달리 직접 번역에 참여하지 않아도 다양한 번역을 둘러볼 수 있고 의뢰받은 번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번역해 보고 싶은 글을 번역하여 올림으로써 대중에게 소개하는 자의적 번역의 형태도 함께 갖추고 있다.

6) 모(孟 2014)에 따르면 gengo 테스트에 최종 합격하는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한다.



그림 4 플리토의 예

코냐의 경우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허가를 받지 않은 기사 문 등은 요약번역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밖에 코냐의 경우는 분야별로 번역의뢰를 검색해 볼 수 있고 과거 다른 사람의 번역과 원문, 피드백 내용 등이 매우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다. 또한, 번역자의 그 동안의 수주 이력, 피드백 이력을 개별적으로 볼 수 있어 의뢰인 입장에서 신뢰할만한 번역자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③민나노 혼야쿠(みんなの翻譯)

민나노 혼야쿠는 번역편집기(QRedit)의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자원 봉사 번역이다. 저작권 허가를 받았거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CC 혹은 CCL7)하에 있는 기사에 한정하여 번역을 공개할 수 있으며, 비공개로 설정하여 개인 번역 연습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룹 번역, 용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업할 때 용어를 통일할 수도 있고 용어 데이터를 축적하여 번역 메모리로도 활용할 수 있다.

7)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http://www.cckorea.org/xe/ccl>).



그림 5 민나노 혼야쿠의 예(번역기사들)



그림 6 민나노 혼야쿠의 예(QRedit번역편집기)

이상과 같이 쟁고, 플리토, 코낙, 민나노 혼야쿠의 메뉴 및 기능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교육용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3.1.2. 번역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

① 의뢰인의 번역 브리프 파악

김진숙(2011), 함채원(2016) 등에서는 번역브리프의 형식을 수업에 도입하여 실무를 경험하게 한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수업을 거듭하면서 학생들이 번역 브리프에 익숙해져 가는 양상을 실행연구를 통해 보여 주었다. 크라우드소싱 번역에서는 <표 1>과 같이 실제 의뢰인의 번역브리프를 접해 볼 수 있다.

〈표 1〉 의뢰인의 번역브리프(코낙의 예)

<p>会員様メルマガに掲載します。(필자번역: 회원용 메일메거진에 게재합니다)</p> <p>■ 浜崎あゆみ アーティスト名は「AYUMI HAMASAKI」に統一下さい。 (필자번역: 아티스트명은 「AYUMI HAMASAKI」로 통일해 주세요) 全角文字は半角文字に置き換えてください。 (필자번역: 전각문자는 반각문자로 치환해 주세요)</p>
--

<표1>과 같은 실제 번역브리프의 사례를 모아 학습자들에게 제공한다면 번역브리프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② 다양한 장르의 번역 텍스트

수업에서 활용하는 번역텍스트는 실무 현장에서 쓰인 자료가 바람직하겠으나, 기밀유지 등의 제약으로 공개할 수 있는 문서가 한정되어 있다. 클라우드소싱 번역에는 비즈니스메일, 계약서 등 다양한 텍스트가 실제 의뢰로 올라와서 실무 연습에 활용할 수 있다. 코낙의 경우 공개번역으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비즈니스메일, 전자상거래, 법무, 주문, 기술, 의학 등 내용이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다.

〈표 2〉 오픈소스로 제공된 각 장르(코낙)

사죄메일	<p>お客様にご不便をおかけしておりますことについて、お詫び申し上げます。</p> <p>お客様に商品が到着したのは、昨年12月2日となっております。残念ながら、お客様が商品を受領してから30日以上経過しておりますので、返品の要求をお受け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この取扱いは、アメリカのアマゾンのポリシーと同様ですので、ご理解を賜り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なお、商品の修理については承ることは可能です。その場合は、改めて修理の要求をお願いいたします。</p>
계약서	<p>1. 신종플루, 에이즈, 간염 및 슈퍼박테리아 등 142개 균주를 멸균하는 증명을 미국 EPA로부터 인정받은 세계 1위의 소독약 제조하는 Microgen Inc(USA)의 아시아 지역 공급업체인 Magnex Inc.(갑)는 중국 지역 판매, 마케팅 및 홍보에 관련하여 Beijing Shihan (을)와 업무 제휴함에 갑을 쌍방은 약정을 한다. 2. 제휴 약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3. 쌍방은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p>

프레젠테이션자료	1 2 · 加工品や原材料に対して、3倍程度の付加価値をつけて消費者へ · 人を介したサービスが武器 · 加工品、原材料に対して1.25倍~1.3倍程度の付加価値をつけて消費者へ · マーチャンダイジングが武器 · 第6次産業化への取り組み · 第6次産業とは農林漁業など第1次産業を、加工など第2次産業や、小売など第3次産業と融合させるもので、生産した農産物や採れた魚を用途に合わせ切ったり、刻んだりして、袋や箱に詰め、消費者やスーパー、飲食店へ販売する産業
----------	--

<표2>와 같이 실제 의뢰한 여러 장르를 보고 현장감을 느낄 수 있으며, 실무 자료에 대한 한계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고객 평가 및 번역자들 간의 활발한 피드백

<표 3> 번역에 대한 상호 피드백

<ST> ...~라는 그 부분은 모든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려하시는 점 같아요.”글로벌 시장,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조 대표는 내년 1/4분기를 목표로 미국과 일본시장의 진출계획을 말했다. 그에게 글로벌시장 진출에 두려움은 없는지 물었다. “유럽에 스타트업 컴퍼니들을 보면 10명에서 사업을 하는데 한 명이 아시아 담당, 또 다른 한 명이 유럽 담당, 한 명이 북미, 남미 담당 이렇게 글로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TT> ...~という部分は、全ての投資家達が共通して考慮に入れているようだ」 グローバル市場、漠然とした不安を克服しなければ チョ代表は来年の第一四半期を目標に、アメリカと日本市場への進出計画を語った。彼にとってグローバル市場進出に不安はないのか聞いた。 「ヨーロッパのスタートアップカンパニーを見てみると、10人で事業をしていて一人がアジア担当、また他の一人がヨーロッパ担当、一人が北米、南米担当と、このようにグローバル事業をしていることがある。
<피드백> ① ~という部分は、全ての投資家達が共通して考慮に入れているようだ」 (修正) → ~という点は、投資家なら誰もが考慮するだろう」

②글로벌市場、漠然とした不安を克服しなければ
 이부분은 기사 표제인가요?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표현하는 게 더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修正1案) → 글로벌市場では漠然とした不安の克服が先決
 (修正2案) → 글로벌市場での優先課題は漠然とした不安の克服
 ※「優先課題」부분은 「要」 등으로 바꾸셔도 무방
 「優先課題」の部分は「要」などに変更してもいいです

③
 チョ代表は来年の第一四半期を目標に、アメリカと日本市場への進出計画を語った。彼にとってグローバル市場進出に不安はないのか聞いた。
 (修正) → 来年第一四半期に目標としているアメリカおよび日本市場への進出計画を語るチョ代表に、グローバル市場への進出に不安はないのか訊いた。

④
 「ヨーロッパのスタートアップカンパニーを見てみると、10人で事業をしていて一人がアジア担当、また他の一人がヨーロッパ担当、一人が北米、南米担当と、このようにグローバル事業をしていることがある。
 (修正) → 「ヨーロッパのスタートアップカンパニーでは、社員10人のうちアジア担当、ヨーロッパ担当、北米・南米担当をそれぞれ1人ずつ置いてグローバル事業を展開しているケースが見受けられる。

<피드백에 대한 답글>
 丁寧なレビュー、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初めてのレビューで大変うれしいです。
 日本語として意味の通りくい直訳調にはならないようにと気をつけてはいますが、なかなか自然な日本語にするのは難しいですね。
 特に (2) の部分、「～해야」を「優先課題」や「先決」というような言葉に置き換えることは思いつきませんでした。 翻訳の質を上げられるよう、努力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번역 수업은 주로 과제를 통해 수행한 번역물에 대한 상호 평가와 조언으로 이루어지며(이상원 2006),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경이(2011)는 자가평가, 동료평가, 교수평가의 다면적 평가를 제안하고 있다. 클라우드소싱 번역의 번역사들 간의 상호 피드백은 교실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 소수의 인원 에 의해 이루어지는 토론에 비해 <표 3>과 같이 더욱 광범위한 여러 의견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표 4> 크라우드소싱 번역의 오픈소스를 활용한 번역과 피드백 댓글

<p><ST> 今回は、報告された症例の中身までは検討できませんでした。今後、カリニ肺炎のように日和感染であることがほとんど疑いないような疾患以外について、症例の中身をよく検討し、その症例が果たして本当に日和見感染かどうかを判断して、true positive症例の拾い上げる確率を調べるのはいかがでしょうかと思っています。そのほかに検討すべき課題などについて、アドバイス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 確かに、日和見感染の原因となる疾患は、時代と共に変遷していると思います。世界的に見れば、日和見感染はエイズに関連する事象と考えられるのが現代かも知れません。しかし、日本では、エイズは増加傾向にありますが、まだまだ少数派で、例えば、日和見感染の代表とも言えるカリニ肺炎にしても、エイズではなく血液疾患や癌に対する抗がん剤、自己免疫疾患に対する免疫抑制剤の使用によるが背景にあることがほとんどです。今後は移植関連の事象も増加すると思われれます。</p> <p><TT> 이번에는 보고된 증례의 내용까지는 검토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주폐포자충 폐렴과 같은 기회 감염이 거의 없는 질환 이외의 병에 관해서는 증례의 내용을 잘 검토하여 그 증례가 기회 감염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true positive 증례를 발견하는 확률을 조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외에 검토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기회 감염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시대에 따라 변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현재 사회에서는 기회 감염은 에이즈와 관련된 사례가 많다고 여겨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에이즈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소수이며, 예를 들어 기회 감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주폐포자충 폐렴의 경우에도 에이즈가 아니라 혈액 질환과 암에 대한 항암제, 자기면역질환에 대한 면역 억제제의 사용이 그 배경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식 관련 사례도 많아질 것입니다.</p>
<p><댓글1> 증례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는 듯 하지만 증상이라는 표현도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현재’로 오타가 난 부분 이외에 문법적으로 어색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 표현도 꽤 자연스러운 듯 합니다.</p>
<p><댓글2> 日和感染であることがほとんど疑いないような疾患以外について → “기회 감염이 거의 없는 질환 이외의 병에 관해서는”으로 번역해주셨습지만 疑いないような의 번역이 빠진 것 같습니다. 대략 ‘거의 분명한/틀림없는/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의미로 보입니다. 또한 ‘관에서는’ → 관‘해’서는, 아무래도 오타로 보입니다.</p>
<p><댓글3> 한 의학 관련 서적을 보니 “~민감도와 특이도를 다른 용어로 각각 진양성(true positive), 진음성(true negative)이라고도 한다”라는 문장을 찾았습니다. 원문에서는 true positive 만 영문으로 사용되긴 했지만 “진양성(true positive)”라는 식으로 한국어 표현과 영문명을 같이 기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p>
<p><댓글4> ‘주폐포자충 폐렴’이라고 해주셨는데 ‘카리니페렴’의 사용빈도가 조금 더 높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매끄럽게 잘 번역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요^^</p>

<표 4>는 공개된 오픈소스 상의 실제 번역 의뢰물을 학습자들에게 번역하게 하여 사이버캠퍼스(e클래스) 상에서 교실 구성원 사이에서만 번역 결과를 공개하고 댓글로 피드백을 달도록 한 예로, 실제 오픈소스형 번역의뢰에 대한 번역 및 첨삭을 체험해 보게 한 것이다.

⑤ 여러 번역의 비교

<표 5> 코냐크의 예(번역 비교)

<p><ST> Conyacには世界中の翻訳者に多数ご登録頂いております。翻訳者が経験を積んでステップアップできる仕組みを設けており、多くの翻訳者からご愛用頂いております。翻訳者は品質の悪い翻訳を提出すると評価が下がり翻訳が出来なくなるという評価制度により、高品質を保っています。</p>
<p><TT1> Conyac에는 전세계의 번역가가 다수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가가 경험을 쌓아 스텝 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며, 많은 번역가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번역가는 품질이 나쁜 번역을 제출하면 평가가 내려가 번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평가 제도에 의해, 고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p>
<p><TT2> Conyac에서는 전 세계의 번역가가 다수 등록되어 있습니다. 번역가가 경험을 쌓아 스텝업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많은 번역가들로 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번역가는 품질이 나쁜 번역을 제출하면 평가가 내려가 번역을 할 수 없게 되는 평가제도로 고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p>

수업 시간에도 다른 동료의 번역과 비교하여 좋은 표현을 찾아내고 공유함으로써 학습 향상의 상승효과를 볼 수 있듯이 기존의 1:1 번역에 비해 오픈소스형이 좋은 점은 <표 5>와 같이 여러 사람의 번역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⑥ 용어의 등록 및 공유로 코퍼스 구축

開	用語	対訳	タグ	コメント	登録者	更新日
👤	アルファ基	알파기			lorans	2016-03-28
👤	北都経	북한			lorans	2016-03-28
👤	実用化	상용화			lorans	2016-03-28
👤	統一省	통일부			lorans	2016-03-28

그림 7 민나노 혼아쿠의 예(용어 등록)

그림 7과 같이 번역 편집기로 번역을 하면서 용어를 등록하거나 용어만 따로 등록하여 공유할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들과 함께 ‘민나노 혼야쿠’의 용어 등록 기능을 이용하여 각자 용어를 등록하여 용어를 모은 예이다.




















	タックスヘイブン	조세회피처
	テラバイト	TB
	ドライブレコーダー	블랙박스
	バイドゥ	바이두
	バックingham宮殿	버킹엄 궁전
	パークレーズ	바클레이즈
	パナマ	파나마
	パナマ文書	파나마 페이퍼스
	ファンダメンタル	기초체력
	ブラインド・トラスト	백지신탁
	ブルームバーグ	블룸버그
	プライベートバンク	프라이빗뱅크
	ペーパーカンパニー	유형회사
	ペーパーカンパニー	페이퍼컴퍼니
	ポットキャスト	팟캐스트
	マネーロンダリング	돈세탁
	モザック・フォンセカ	모색 폰세카
	リスナー	청취자
	ヴァージン諸島	버진 아일랜드

그림 8 용어 등록 및 공유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고 자유롭게 등록해 보도록 하였는데,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어휘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

3.1.3. 학생들의 반응

각 크라우드소싱 번역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크라우드소싱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던 것을 확인하고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각 사이트에 등록해 보기, 광고로 번역 시험보기, 플리토와 코낙의 각 번역 둘러보기 등을 경험해 보게 했다. 실습 후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고 각 사이트를 체험해 보도록 권유하고 일주일 후 민나노 혼야쿠의 에디터 기능을 사용해 번역해 보기, 용어 등록하여 공유해 보기 등을 실습한 후 바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 [1]수업 후 일주일 동안 참여해 본 사이트
- [2]수업 후 크라우드소싱 번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 [3]크라우드소싱 번역이 향후 일반화될 것으로 보는가?
- [4]크라우드소싱 번역이 번역 훈련에 유용한가?
- [5]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사이트는?

[1]의 경우는 각 사이트들에 대해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보기만 했다는 응답이 많았고, [2],[3],[4]는 대부분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5]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사이트로는 ‘민나노 혼야쿠’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번역 편집기, 단어 등록 등을 학습에 유용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결과라고 본다. 수업 소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응답이 있었다.

[6]크라우드소싱 번역을 경험한 소감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혼자 집에서 공부할 때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번역한 걸 보면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다양한 사이트를 모두 체험해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다양한 사람의 번역을 볼 수 있고 저도 해볼 수 있어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나노 혼야쿠에서 사용한 QR에디터가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번역 세계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이를 통해 어느정도 일이 확보된다면 유용할 것 같다. 동기들과 적극 공유하고 싶다.
눈에 보이게 용어를 등록해서 보고 직접 쓸 수 있는 게 신기했고, 한 번 등록해 두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접한 느낌이었습니다. 집단지성을 이용한 번역작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수당이 저평균화되는 것은 아닌지 조금은 우려됩니다.
크라우드소싱 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의뢰를 통해 어떤 종류의 의뢰들이 있는지 실제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기계번역 체험(?) 같은 느낌도 좋았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전 크라우드소싱 번역을 거의 접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수업 후 경험해 보고 대부분의 학생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신선한 경험으로 받아

들이고 있었고, 번역 학습에도 유용하다고 판단한 것을 알 수 있다.

3.2. 번역 수업 용 솔루션의 제안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고, 지속적으로 시행했을 경우 학습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1]번 항목의 질문에 대해 ‘직접 참여는 하지 않고 보기만 하였다’는 응답이 많아, 학업을 수행하면서 여러 사이트를 둘러보고 참여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러 기능들이 각 사이트마다 분산되어 있어서 수업에 여러 가지를 활용하기에는 자칫 산만한 학습이 될 우려도 있다. 또 교육 차원이라고는 해도 [6]번 질문에 대해 ‘수당이 저평균화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라는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급 인력을 양성하면서 저가 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외부 환경의 변화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교실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요소가 다양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업에 적합한 형태로 응용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기존 번역 수업 연구에서 도입했던 방법을 바탕으로 각 크라우드소싱 번역 사이트들로부터 찾아낸 번역수업에 필요한 항목과 기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①번역브리프
- ②제공하는 과제물(ST)과 과제 수행물(TT), 피드백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을 것.
- ③여러 사람의 번역을 쉽게 볼 수 있을 것.
- ④피드백에 대한 답글 기능.
- ⑤번역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용어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

이들 필요한 항목 및 기능 외에 레이아웃 측면에서 기계번역, 번역 편집기 등의 기능을 보면 일반적으로 원문과 번역문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주로 좌측에 원문, 우측에 번역문이 위치하고 있거나 상단에 원문, 하단에 번역으로 되어 있다.

翻訳



그림 9 구글번역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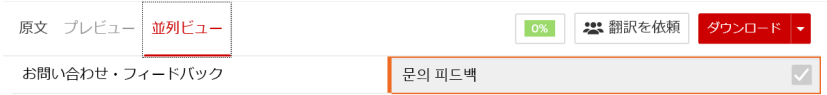


그림 10 'YARAKUZEN'의 병렬뷰



그림 11 'YARAKUZEN'의 번역 결과에 대한 원문 표시 및 수정 가능

그림 10과 같이 원문과 번역문이 문장별 혹은 단락별로 선으로 나누어져 비교하기 쉽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림 11처럼 번역문에 커서를 놓고 클릭하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원문이 자동으로 뜨고 그 자리에서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기도 한다.

위와 같이 원문과 번역문을 배치해 놓은 형태가 IT에 익숙한 세대에게 시각적으로도 익숙하고, 과제물을 수행하거나 피드백/코멘트를 제공하기도 수월하다. 하나의 원문에 대한 여러번역을 보기 위해서는 상단(ST), 하단(TT)보다는 좌측(ST), 우측(TT)의 형식이 편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업에서도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엑셀 형식으로 제공해 보았다.

<표 6> 번역과제용 포맷

의뢰인의 번역브리프:					
번역수행시 전략:					
ST	1차 TT	번역과정기입 (참고출처, 번역근거 /의견, 의문점, 미해 결여부 등)	동료감수(의미 적 피드백, 형 식적 피드백, 피드백 근거, 대안, 번역자 에 대한 질문 등)	2차TT(감수 결과를 바탕 으로 필요한 부분만)	교수 최종 감수

<표 7> 엑셀로 여러 번역 비교

	ST	TT
3	SMBC融資事務サービス株式会社(以下「当社」といいます。)は、「個人情報保護に関する法律」(以下、「法」といいます。)に基づき、個人情報の適切な保護と利用に関する取組方針を宣言するとともに、以下の事項を公表いたします。	SMBC 용자 사무 서비스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근거하여 개인 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적절한 이용에 관한 노력 방침을 발표하며 이하의 사항을 공표합니다.
		SMBC용자사무서비스주식회사(이하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호와 이용에 관한 방침을 선언하는 것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표합니다.
		SMBC용자사무서비스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으로 함)에 의거한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호와 이용에 관한 취급방침을 약속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엑셀은 화면을 얼마든지 길게 할 수 있고, <표7>과 같이 각 셀을 잘라내어 한 원문에 대한 여러 번역을 비교할 수 있도록 편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엑셀 형식으로 하여 다시 편집하여 번역 비교를 하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문장 단위로밖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크라우드소싱 번역에서 제공되는 형태와 같은 플랫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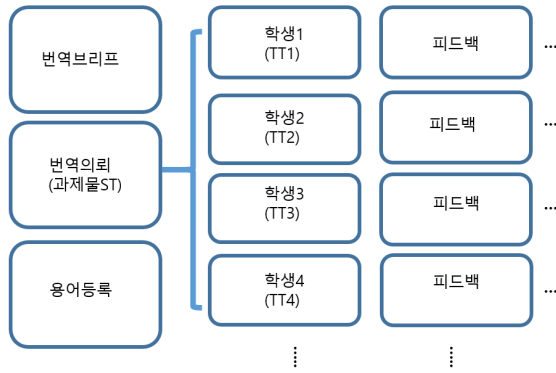


그림 12 번역과제물 수행 플랫폼의 제안

위와 같이 번역브리프와 번역의뢰가 주어지면 각자 번역하면서 용어를 등록하고 번역물을 게시한 후 동료의 번역까지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수자의 번역물 제공과 과제물 피드백이 용이하면서도 학습자들 사이에 동료의 번역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시도하였듯이 번역 수업에서 과제를 제공하는 교수자는 ‘의뢰인’이 되어 과제물과 함께 번역 브리프를 제공하도록 한다. 적은 인원이지만 교실의 구성원들도 집단지성으로 볼 수 있으며, 10명 내외의 학습자가 각자 번역을 수행하되, 번역하면서 용어등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학습자들 사이에 용어를 공유하고 축적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된다.

크라우드소싱 번역 사이트 자체를 번역 훈련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나 그 보다는 크라우드소싱 번역 사이트들의 장점을 찾아 수업용으로 개발하여 수업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번역을 공개함으로써 상호간에 자유로운 피드백이 용이하고, 교수자의 편집과정 없이 과제물을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나오며

크라우드소싱은 번역뿐 아니라 크라우드펀딩, 디자인 공모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향후 그 발전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⁸⁾ 특정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보다는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원하는 참여자를 모집하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추세는 번역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품질 저하의 문제로, 번역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결국 전문 번역사와 비전문 번역자를 구별하여 의뢰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기계번역, 인공지능 등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함께 최종 결과물을 감수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전문 번역사에 대한 요구는 더 증가할 수 있다. 아무튼 인터넷의 발달로 번역의 의뢰 형태에 변화가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며,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흐름을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무 현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크라우드소싱 번역을 살펴보고, 수업을 통하여 다양한 번역을 연습하고 익힘과 동시에 서로 간의 번역을 비교, 평가하는 훈련과 실무 상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크라우드소싱 번역의 여러 장점을 도입한 플랫폼을 제안해 보았다. 물론, 크라우드소싱번역 사이트의 번역물들의 품질이 낮을 경우는 번역을 비교하고 살펴보는 데 적합하지 않아 자칫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학생들이 사이트에 번역을 올려서 피드백을 받고자 해도 통번역대학원생들의 번역을 감수할 만한 전문가가 없고 그 수준도 낮아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할 때에는 교수자가 개입하여 적절한 번역물을 선정하고 실제로 번역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기 보다는 번역 비교, 감수와 같은 방법적인 부분을 선별적으로 도입하여 크라우드소싱 번역 형태로 수업 활동을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크라우드소싱 번역의 수업 적용의 이점을 잘 살려서, 사전에 수업에 도입하기에 유용한 텍스트를 선정하고, 실제 의뢰인의 요구와 피드백 등을 잘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과제물 혹은 수업 시간을 통하여 실제로 번역 및 감수 등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시행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실무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미래형 번역 인재를 양성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본다.

8) <http://www.itworld.co.kr/news/97564>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08230>

참고문헌

- 강경이 (2011) 「번역수업에서 번역과제물 감수활동을 통한 다면평가 제안」, 『번역학연구』 12(4): 7-32.
- 강지혜 (2012) 「인터넷 상에서의 번역에 관한 고찰」, 『통역과 번역』 14(2): 1-33.
- 김련희 (2011) 「번역과 언어서비스제공자」, 『人文科學研究』 18: 1-25.
- 김진숙 (2011) 『번역상황의 번역교육 적용에 관한 실험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아 (2014) 「번역 사용자 참여를 활용한 비즈니스 번역 수업」, 『통번역학연구』 18(2): 15-39.
- 박범진, 문병섭, 변장선 (2012) 「클라우드 소싱의 ITS 적용 방안」, 『한국ITS학회논문지』 제11권 제2호 통권40호: 48-56.
- 박슬라 역 (2012) 『클라우드소싱』 Jeff Howe(2008) *CROWDSOURCING*, 리더스북.
- 안정국, 김희웅 (2014) 「집단지성을 이용한 한글 감성어 사전 구축」,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 527-532.
- 이동현, 이천재 (2012) 「지적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소싱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8(2): 55-70.
- 이상원 (2006) 「BA 번역 수업에서의 학생 상호 번역 비평」, 『통번역학연구』 10(1): 95-107.
- 이지민 (2014) 「집합지성과 네티즌 번역 특징에 관한 탐색적 사례 연구」, 『통번역학연구』 18(4): 141-166.
- 임재은 (2015) 「피드백과 목표가 클라우드소싱 결과물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함채원 (2016) 『전문번역교육 수업 모델 설계와 적용에 관한 실험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De Palma, D. and Kelly, N.(2009) ‘Project Managemanet for Crowdsourced Translation:How User-Translated Content Projects Work in Real Life.’, *Translation and Localization Project Management: The Art of the Possible*. Amsterdam-Philadelphia:John Benjamins: 379-408.

- O'Hagan, M. (2011) 'Community Translation: Translation as a social activity and its possible consequences in the advent of Web 2.0 and beyond.' *Linguistica Antverpiensia, New Series - Themes in Translation Studies*, (10): 11-23.
http://www.aclweb.org/website/old_anthology/P/P11/P11-1122.pdf
- Yan, Rui and Gao, Mingkun and Pavlick, Ellie and Callison-Burch, Chris (2014) 'Are Two Heads Better than One? Crowdsourced Translation via a Two-Step Collaboration of Non-Professional Translators and Editors', 1134-44.
<http://www.aclweb.org/anthology/P14-1107.pdf>
- Yan, Rui and Song, Yiping and Li, Cheng-Te and Zhang, Ming and Hu, Xiaohua (2015) 'Opportunities or risks to reduce labor in crowdsourcing translation? characterizing cost versus quality via a pagerank-HITS hybrid model', *Proceedings of the 2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1025-32. <http://ijcai.org/Proceedings/15/Papers/149.pdf>
- Zaidan, Omar F; Callison-Burch, Chris (2011) 'Crowdsourcing translation: Professional quality from non-professionals', in *Proceedings of the 49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Human Language Technologies-Volume 1*,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1220-29.
- 孟涛 (2014) 「オンライン翻訳サービスの現状と課題—gengoの事例研究—」
<https://dspace.jaist.ac.jp/dspace/bitstream/10119/11968/5/paper.pdf>

[Abstract]

Utilizing crowdsourced translation in translator training
— focusing on the practices in Japan —

Lee, Ju-Ri-Ae

(Ewha Womans University)

Since the beginning of the 2000s, the commissioning of translation is increasingly based on crowdsourcing. The tendency to capitalize on the collective intelligence of the crowd while saving time and cost has given rise to ongoing debate over low-price markets where professional translators lose ground and translation quality is poor. With help of experts and technical assistance, however, this new mode of translation seems to have a major role to play in future translation markets. Translation schools should take this emerging trend into consideration to keep up with the changing marke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benefits and shortcomings of crowdsourced translation, along with ways to employ crowdsourcing in translator training. Difference in perception towards crowd-sourcing between Korea and Japan, along with students' awareness is investigated. Learner experience of and response to different types of crowdsourced translation is observed, based on which suggestions are made. It is particularly proposed that the assignment of translation work, the actual process of translating and feedback communication should mirror the practices in the professional field. The role of translation schools and professional translators the schools are to produce in the future is also discussed, in light of the growing body of translation produced by regular internet users and the ever diversifying channels for commissioning translation in the cyber space.

▶ Key Words: crowdsourcing, crowdsourced translation, commissioning of translation, translator training, collective intelligence

이주리아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조교수

julietlee@ewha.ac.kr

관심분야: 크라우드소싱 번역, 평가어 번역, 모달리티, 통번역 평가

논문투고일: 2016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16년 6월 6일

게재확정일: 2016년 6월 15일